

◇경상

**문제 1** <보기>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설명하는 여행과 비교하고 논평하시오.  
(800 ± 80자, 40점)

**<보기>**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5박 6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많은 곳을 누비며 멋진 풍경과 낯선 사람들을 실컷 구경하였다. 가는 곳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을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시간이 되어 아쉬움을 안은 채 돌아 올 수밖에 없었지만, 유적지에서 산 기념품들과 수백 장의 사진들은 그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준다.

(가) 만주를 우리 영토로 착각할 정도였다. 여권도 필요 없고 검문검색도 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평원, 그것은 황량한 신천지였다. 신경의 관동군사령부도 견학할 수 있었다. 대포나 탱크 같은 신예무기도 보여주었는데 까마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일본의 세력이 이 광활한 대지 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우리의 기를 꺾어놓겠다는 것이 이 수학여행의 목적이었는지 모른다. 일본의 저력을 보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대련의 기름 짜는 공장을 견학했는데 꾸리(苦力)라고 불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나체상태에서 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식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검은 빵을 손으로 뜯어서 입에 넣고, 파를 춘장이라 불리는 중국식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전부였다. 만주국을 세운 일제는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부르짖었지만 대우는 일본인 다음이 조선인이고 한족과 만주족은 그 뒤이고 몽골인이 최하였다. 우리는 착잡한 마음이 되어 대구로 돌아왔다.

(나) One departs the home to embark on a quest into an archetypal wilderness that is dangerous, threatening, and full of beasts and hostile aliens. This sort of encounter with the other—both the inner and the outer—requires giving up comfort and safety, accepting cold and hungers, and being willing to eat anything. You may never see home again. Loneliness is your bread. Your bones may turn up someday in some riverbank mud. It grants freedom, expansion, and release. Untied. Unstuck. Crazy for a while. It breaks taboo, it verges on transgression, it teaches humility. Going out—fasting—singing alone—talking across the species boundaries—praying—giving thanks—coming back.

(다) 우리 문화 바깥에 있는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인식은 결코 물리적인 이동을 전제하지 않는다. 양식 있는 ‘방콕’ (방에 콕 박혀 있는) 여행자들은 집을 나서 멀리 모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가보지 않는 곳이라도 자기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그 장소들에 대해,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서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콕’ 여행자들은 현장에 너무 가까이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물리적인 여행은 방문하는 장소를 시각적으로 보게 해주지만, 그곳을 심층적으로 보게 해주지는 않는다. 방문지의 외관은 그 장소가 품고 있는 무한한 의미의 제한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들은 자신이 그 장소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장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장소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장소의 역동성을 파악할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하면 여행하고자 하는 장소가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 장소가 만들어 나갈 수많은 이야기의 가능성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콕’ 여행은 결코 꿈쩍 않고 머무르는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고 역동적인 여행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상력과 사유의 힘을 통하여 보다 고차원의 여행에 나설 수 있다. 낯선 장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또한 그 장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지에 유의하면서, 자기 내면의 힘을 통한 여행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라) 소리 없는 죽음을 뚫으며 올라가는 트레킹, 아니 잘못된 관광산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02년부터 캠페인을 펼쳐 온 영국의 관광감시 NGO 활동가는 이렇게 꼬집는다. “사람들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포터들은 보통 사람과 달리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나를 수 있고, 높은 고도에서도 고산증 따윈 상관없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슬리퍼에 면바지만 입어도 감기에 걸리지도 동상에 걸리지도 않는 슈퍼맨 같은 존재라는 이상한 믿음을. 하지만 히말라야를 오르는 많은 포터들은 낮은 구릉지대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산에 오르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죠.”

안나푸르나 지역 군데 병원에서 포터들을 치료하는 의사는 해마다 평균 2천여 명의 포터들이 동상, 고산증, 실명, 낙상과 부상 등으로 병원을 찾아온다고 했다. 그 의사를 찾아오는 이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티베트 카일라스 트레킹 혹은 아프리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사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포터

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포터에게 보험은 들어주었나요? 품삯은 누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포터에게 전달되나요? 포터들에게 추운 날씨와 고도를 견딜 수 있는 장비와 숙소가 제공되나요? 여행은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권의 장을 여는 평화의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에 답하시오.  
(1000 ± 100자, 60점)

(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의 재정위기 사태를 계기로 채무국의 국가부도와 채무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국가부도란 특정 국가가 자금부족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러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경우를 일컫으며, 채무조정은 부채감축, 만기연장,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채무국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가운데 부채감축은 채권국이 채무국의 부채상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00년을 전후하여 부채위기를 겪은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60%에 가까운 원금이 탕감되었으며 에콰도르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27%, 38%의 부채경감이 이루어졌다.

부채가 감축될 때, 탕감된 액수는 채권국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채권단의 저항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국은 채무국에 대해 부채감축의 조건으로 재정건전화와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채무국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채무국의 경제체질이 제고되고 수출이 증대됨으로써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으로 경제위기가 파급되는 효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는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재화가 주는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일컫는다. 무임승차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버스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용, 즉 버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버스의 뒷문이 부서져 있어 사람들이 뒷문을 통해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타고 내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버스의 뒷문을 고치거나 무임승차 승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버스의 운행은 곧 중지될 것이다.

부채감축은 채권국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통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국 사이에 무임승차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채무국에 대한 부채감축에 동참하지 않은 채권국이 부채탕감에 따른 원금 손실은 보지 않는 반면, 채무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혜택(즉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채무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실 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국 간의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다음은 세 개의 가상 국가들 간의 부채 현황 및 상환 가능성에 대한 가정들이다.

- ◆ 가정 1: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국 A는 금년 말 기준으로 채권국 B와 채권국 C에게 각각 15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나 현 상태로는 부채를 모두 상환할 능력이 없다.
- ◆ 가정 2: 채무국 A는 만약 내년에 경기가 호전되어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남아 있는 부채의 전액을 상환할 것이나, 경기가 악화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무조건 30억 달러만을 지급한다.
- ◆ 가정 3: 내년도 경기 호전 및 악화의 가능성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국 A의 구조조정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경기 변동 확률	구조조정이 없는 경우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경기 호전	경기 악화	경기 호전	경기 악화
	1/3	2/3	1/2	1/2

- ◆ 가정 4: 채무국 A는 자발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없으며, 채권국이 부채를 감축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조조정에 임한다.

- ◆ 가정 5: 채무국 A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경기 변동(호전 또는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채권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 2-1>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수치를 이용하여 내년에 채권국 B와 C가 각각 채무국 A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expected payment)을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계산하시오.

- ① B국과 C국 모두 A국에게 부채감축을 해주지 않는 경우
- ② B국과 C국 모두 A국에 대해 부채를 30억 달러씩 감축해 주고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③ B국이 A국에 대해 30억 달러만큼 부채를 감축해 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C국은 부채감축을 해주지 않는 경우
- ④ B국과 C국 모두 A국에 대해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 2-2> 문제 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채권국이 부채감축의 대가로 채무국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문제 2-3> 문제 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채권국간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설명하시오.